

SPORTS '김도영 라이벌' 윤도현, 새 시즌 도약 노린다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스프링캠프서 수비 집중...전천후 야수 준비 kt와 연습경기서 투런포 폭발...타격감 증명

“어느 자리든 감독님에게 신뢰받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2025시즌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KIA 타이거즈 윤도현이 이같이 밝혔다.

윤도현은 지난 2022년 신인드래프트 2차 2라운드 15순위로 KIA에 등지를 들었다. 그는 광주 화정초 1학년 때부터 리틀야구단에서 야구를 배우며 프로선수의 꿈을 키워왔다. 무등중학교 시절에는 지역 최고의 유격수로 자리 잡으며 김도영과 라이벌 구도를 이뤘다. 광주일고 진학 후에는 강한 타구를 생산하는 능력과 견실한 수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김도영과 함께 KIA의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2022년 시범경기 당시 오른손 중수골 골절상을 당하면서 1군 무대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이듬해 5월에는 꿈에 그리던 1군 무대를 밟았지만, 1경기만 뛰고 햄스트링 부상으로 2군 무대로 내려갔다.

2024년 역시 손가락 골절 등으로 2군 생활과 재활을 병행하던 그는 9월 다시 기회를 잡았다. 이달 23일 삼성전에서 처음 출전하게 됐고,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을 올렸다. 이후 시즌 최종전까지 6경

기에서 27타수 11안타 1홈런 8타점 타율 0.407로 맹활약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총 60명이 참가한 올해 스프링캠프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미국과 일본에서 훈련을 소화하던 그는 지난 3일 연습경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또다시 입증했다. 윤도현은 이날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 열린 kt위즈와의 연습경기에서 2루수 겸 7번타자로 등판했다. 4회말 1사 2루 상황 타석에 들어선 그는 상대 129km 빠른공을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윤도현에 활약에 힘입은 KIA는 kt에게 6-2 승을 거두면서 연습경기 4연패를 끊어내는 데 성공했다.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현장에서 만난 윤도현은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천천히 몸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미국을 거쳐 일본에 오면서 가장 좋았던 건 역대 참가했던 스프링캠프 중에 몸상태가 가장 좋다는 것이다”며 “부상을 안 당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목표이다. 지금까지 부상당한 것들을 보면 저의 부주의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항상 조심하면서 지금 훈련에 지금 임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윤도현은 캠프 기간 2루수와 3루수 유격수 등 내야 자리에 고루 출전했다. 타격감은 충분하지만, 1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안했던 수비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도현 역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수비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렇기에 정식 훈련 전후로 수비 보강훈련을 꾸준히 소화했다.

그는 “수비할 때 무운드적인 부분에서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스텝 위주의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며 “수비 부분에서 감독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타격은 어느 결과가 나오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 같다. 부족한 수비에 대해서 꾸준히 보안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 시즌 KIA 내야수 주전 자리는 이미 정해졌다. 1루수 패트릭 위즈덤, 2루수 김선민, 3루수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 등이 버티고 있다. 윤도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범호 감독 일단 그를 내야 전천후 백업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윤도현은 “팀에는 배울 수 있는 선배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부상으로 빠지면서 아쉽긴 했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어느 자리를 가든 감독님께 신뢰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BO리그 평균 연봉 1억6071만원... 김도영 인상률 1위

역대 최고 금액...최형우, 24년차 최고액 경신

KIA 타이거즈 '슈퍼스타' 김도영(사진)이 2025 시즌 연봉 인상률 1위를 기록했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5일 올 시즌 KBO리그에 소속된 선수(신인·외국인 제외) 519명의 평균 연봉이 1억6071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평균(1억5495만원)보다 3.7% 상승한 금액으로, 역대 KBO리그 평균 연봉 최고 금액이다.

2024 KBO 정규시즌 MVP를 차지한 KIA 김도영은 연봉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 지난해 대비 연봉 인상률 400%로 2025년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동시에 2020년 이정후(키움)이 기록한 4년차 최고 연봉 3억9000만원도 경신했다.

김도영의 400% 인상률은 역대 KBO 리그 연봉 인상률 공동 11위 기록이다. FA와 비FA 다년 계

약을 제외하면 2020년 하재훈(SK)의 455.6%(2700만원→1억5000만원), 2021년 소병준(KT)의 418.5%(2700만원→1억4000만원)에 이은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류현진(한화)이 2007년 기록한 인상률(2000만원→1억원)과는 동일하다.

KBO리그 24년 차 올해 등록된 소속선수 중 가장 긴 연차를 자랑하는 최형우도 연차별 연봉 기록을 경신했다.

최형우는 10억원의 연봉을 기록하며 2017년 이후준(NC)의 7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김광현(SSG)은 2025년 KBO리그 '연봉킹'에 올랐다. 김광현은 연봉 30억원을 받아 KBO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다. 또 2024년 연봉 10억원에서 20억원이 오르며 2025년 등록된 선수 중 가장 높은 인상액을 기록했다. 아울러 기



존 19년차 최고 연봉이었던 2019년 이대호(롯데), 2024년 류현진의 25억원 기록도 갈아치웠다.

연봉 공동 2위는 20억을 기록한 구자욱(삼성)과 고영표(KT), 류현진이다. 구자욱은 야수 중 최고 연봉을 기록

했다. 김광현, 고영표, 류현진은 투수 중 가장 높은 연봉 상위 3명으로 집계됐고, 야수는 구자욱에 이어 17억원을 기록한 최정(SSG), 16억원을 기록한 양의지(두산)가 상위 3명이 됐다.

한편 각 구단별 최고 연봉 선수는 투수가 4명(KT·SSG·롯데·한화), 야수가 6명(KIA·삼성·LG·두산·NC·키움)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양시청 백승민·박상혁, 불링 국가대표 발탁

선발전 각각 2·8위 기록...가수형은 후보에 올라

광양시청 불링팀이 2025년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

5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광양시청 불링팀은 최근 경기 동안 빅불링장에서 종료된 '2025년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에서 백승민·박상혁이 남자 국가대표로, 가수형이 후보로 최종 선발됐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은 남녀 각각 60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하루 8게임씩, 6일간 매일 다른 라인 패턴으로 치러졌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각각 남녀 상위 8명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백승민은 합계 1만1405점(평균 237.6점)을 기록하며 최종 2위로 국가대표에 승선했다. 특히 백승민은 이번 선발로 3년 연속(2023~2025년) 국가대표로 활약하게 됐다.

박상혁도 합계 1만1213점(평균 233.6점)을 기록해 8위로 국가대표에 합류했다.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국가대표 승선의 기쁨을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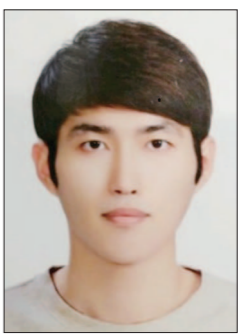
가수형은 1만1196점(평균 233.3점)을 기록, 최종



백승민



박상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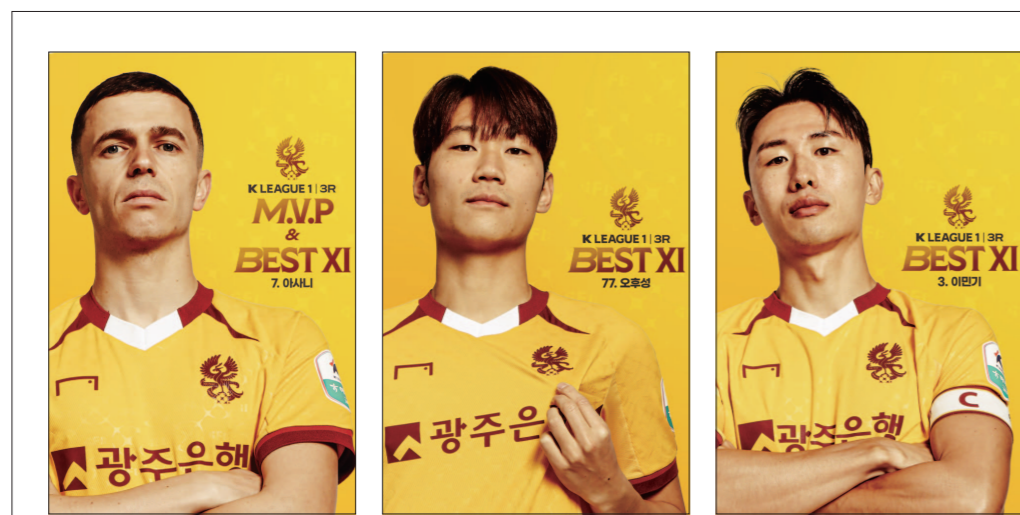
가수형

10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백승민 전남도불링협회장은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광양시청 선수들이 훌륭한 성적을 거둬 자랑스럽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불링을 대표해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며 “선수들이 꾸준히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하중 전남도체육회장도 “광양시청 불링팀의 국가대표 2명, 국가대표 후보 1명 배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전남도체육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아사니

오후성

이민기

광주FC 아사니·오후성·이민기 '3R 베스트 11'

공격·수비 맹활약...베스트팀 선정

공격수 부문 베스트11에 선정된 아사니는 팀이 0-1로 뒤지고 있던 후반 11분 오후성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동점골로 연결했다. 후반 43분에는 역전골을 뽑아내며 팀에 승리를 선물함과 동시에 라운드 MVP까지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다. 오후성 역시 광주 입단 후 리그 첫 도움과 아사니의 역전골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며 개인 첫 라운드 베스트11을 수상하게 됐다.

수비에선 주장 이민기가 측면을 완벽히 봉쇄하며 팀의 리드를 지켜냈고, 시즌 첫 베스트11에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광주는 3라운드 베스트 팀, 베스트 매치까지 모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광주는 지난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홈경기에서 아사니의 멀티골에 힘입은 2-1 역전승을 거두며 리그 첫 승을 신고했다. 그 결과 광주는 이번 시즌 1승 2무로 무패 기록을 이어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체육계 변화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체육회장, 문체위 전체회의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사진)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회의에 참석해 신고식을 치렀다.

유승민 회장은 5일 오전 국회 본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했다.

전재수(민주당) 문체위원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유 회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체육계는 작은 파리 올림픽 때 선수들이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광복할만한 성적을 냈음에도 많은 흥역을 치르고 있다”고 운을 폈다.

유 회장은 이어 “이제는 체육계가 더욱더 바뀌어야 할 때이고, 제가 주도해서 체육인들이 하나로 뭉쳐 뚝딱 뚝딱 주도하는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체육회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체육회 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유 회장의 국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달 3일 국회를 찾아 진중오(국민의힘) 의원, 임오경(민주당) 의원 등 문체위 소속 위원들을 만나 인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



'174km 총알타구' 이정후 3경기 연속 안타 행진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속 174km짜리 총알 타구를 만들며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이정후는 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를 쳤다.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행진은 끊겼지만, 3경기 연속 안타를 생산하며 시범경기 타율을 0.400에서 0.412(17타수 7안타)로 더 올렸다.

이정후는 1회 상대 오른손 선발 니베타에게 삼구삼진을 당했다. 초구 직구 몸쪽 스트라이크를 지켜본 이정후는 낮게 떨어진 커브에 배트를 내밀어 파울을 만들었

고, 3구째 시속 127km 커브에 배트를 헛들었다.

이정후의 올해 시범경기 5번째 삼진이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달랐다.

4회 선두타자로 등장한 이정후는 왼손 볼펜 안디 페랄타의 볼 2개를 잘 고른 뒤, 3구째 시속 151km 싱커가 스트라이크존 안으로 들어오자 경쾌하게 스윙했다.

타구는 시속 174.1km로 빠르게 중견수 앞으로 날아갔다.

이정후는 2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 시속 176km, 3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 시속 172.2km에 이어, 이날도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다.

콘택트 능력을 확인한 이정후는 6회말 수비 때 교체됐다. 이날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는 1-1로 비겼다.

연합뉴스